

# 성폭력 관련 목격 경험과 인식

김영아\*, 강혜경\*\*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e-mail:kanghk@joongbu.ac.kr

## Witnessing experiences and perceptions related to sexual violence

Young A Kim\*, Hyekyung Kang\*\*

\*Dept.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에 따른 성폭력 인식, 성별 의식, 성폭력 이차 피해 인식 및 사회적 효능감을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눈덩이 표집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234명의 대상자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참여자들은 일반적 특성, 성폭력 관련 인식, 성별 의식, 상황 목격 경험, 성폭력 이차 피해 인식,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군 종사자의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여부 정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상황 목격 경험 여부는 성폭력 관련 인식과 자기효능감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군에서 성폭력 인식은 성별 의식과 자기효능감이 성별 의식은 이차 피해 인식과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 결과는 향후 군대 내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폭력 위험 행동 목격자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서론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에 관련한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1]. 성폭력 유형에 상관없이 성폭력 피해자는 불안과 우울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오랜 기간 고통스러워한다[2].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동료는 주변인이자 동시에 목격자가 된다. 특히, 그 상황을 인지한 동료는 단순한 증인이 아닌 성폭력 등의 발생 위험 행동에 대한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자가 되어 성폭력으로 인한 사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주변인이 될 수 있다[3].

이에 본 연구는 군 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목격 경험에 따른 군 종사자의 평소 성폭력 인식, 성별 의식, 이차 피해 인식 및 자기효능감을 비교 분석하여 적극적 주변인으로서 군 동료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군 종사자의 성폭력 목격 경험에 따른 성폭력 인식, 성별 의식, 이차 피해 인식 및 자기효능감을 비교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의 자료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하여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2.1 군 종사자들의 성폭력 목격 경험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변수들의 성별 차이

연구대상자는 총 234명으로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유무에 따른 성별은 경험군에서는 여성이 77명(73.3%)으로 가장 많

왔고, 비경험군에서는 남성이 81명(62.8%)로 많았으며,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p < 0.05$ ). 연령은 경험군에서 30대가 38명(36.2%), 비경험군에서 40대가 49명(38.0%)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에서는 두 군 모두 대졸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전문대 졸업 순이었으며, 목격 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에서는 성폭력의식과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표 1).

#### 4. 논의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이 있는 군은 여성이 많았고, 목격 경험이 없는 군은 남성이 많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상황의 공감 인식이 주변인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유사한 성폭력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여성보다 남성이 상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개입할 가능성이 적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4,5]. 이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주변인의 행동 개입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는 목격한 동료들의 개입을 결정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군대 내 동료 개입에 대한 접근과 목격자 훈련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군 종사자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성폭력 등의 위험 행동 목격과 개입은 군별 특성과 근무 지역, 신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 특성과 부대 환경에 따른 성폭력 관련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A Study on the Safety Status of Sexual Violence, Research Report 2019-37, December, 2019.

[2] S. H. Kim, J. Y. Choi, "The effect of post-traumatic cognition on the psychological sequelae of sexual violence in wom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8, No.3, pp.188-216, 2018.

[3] P. McDonald, S. Charlesworth, T. Graham, "Action or inaction: Bystander intervention in workplace sexual harass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27, No.5, pp.548-566, 2016.52(5), 566-578, 2017.

[4] A. F. Amar, M. Sutherland, K. Laughon,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beliefs associated with bystander behavior and sexual assaul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Nurses, Vol.10, No.2, pp.84-91, 2014.

[5] K. Yule, J. C. Hoxmeier, K. Petranu, J. Grych, "The chivalrous bystander: The role of gender-based beliefs and empathy on bystander behavior and perceived barriers to interven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37, Issue 1-2, 2020.

[표 1] 성폭력 목격 경험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변수들의 차이

| 변수        |         | 있음<br>(n=105)    | 없음<br>(n=129)    | t or $\chi^2$ |
|-----------|---------|------------------|------------------|---------------|
|           |         | n (%) or<br>M±SD | n (%) or<br>M±SD |               |
| 성별        | 여성      | 77 (73.3)        | 48 (37.2)        | 12.39*        |
|           | 남성      | 28 (26.7)        | 81 (62.8)        |               |
| 연령        | 29세 이하  | 33 (31.4)        | 35 (27.1)        | 22.29         |
|           | 30대     | 38 (36.2)        | 35 (27.1)        |               |
|           | 40대     | 29 (27.6)        | 49 (38.0)        |               |
|           | 50세 이상  | 5 (4.8)          | 10 (7.8)         |               |
| 교육수준      | 고등학교 이하 | 13 (12.4)        | 11 (8.5)         | 8.34***       |
|           | 전문대학    | 38 (36.2)        | 45 (34.9)        |               |
|           | 종합대학    | 50 (47.6)        | 70 (54.3)        |               |
|           | 대학원 이상  | 4 (3.8)          | 3 (2.3)          |               |
| 성별 의식     |         | 21.32±7.55       | 26.12±3.54       | 5.16          |
| 성폭력 관련 인식 |         | 23.33±3.82       | 31.44±6.03       | 7.14**        |
| 이차 피해 인식  |         | 27.25±7.78       | 25.99±6.25       | 1.41          |
| 자기효능감     |         | 27.98±7.60       | 31.40±3.44       | 2.44**        |

Note. \* $p < .05$ . \*\* $p < .01$ , \*\*\* $p < .001$ .

#### 2.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성폭력 상황 목격 경험 군에서 성폭력 관련 인식은 성별 의식 및 자기효능감에서, 성별 의식은 이차 피해 인식과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성폭력 상황 목격 비경험군에서는 성폭력 관련 인식은 성별 의식 및 자기효능감에서, 이차 피해 인식은 자기효능감과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2).

[표 2] 성폭력 목격 경험에 따른 변수간의 상관관계

| 변수            |              | 1       | 2     | 3      | 4 |
|---------------|--------------|---------|-------|--------|---|
| 있음<br>(n=105) | 1. 성폭력 관련 인식 | 1       |       |        |   |
|               | 2. 성별 의식     | 0.38*   | 1     |        |   |
|               | 3. 이차 피해 인식  | 0.18    | 0.08* | 1      |   |
|               | 4. 자기효능감     | 0.58*** | -0.16 | 0.55   | 1 |
| 없음<br>(n=129) | 1. 성폭력 관련 인식 | 1       |       |        |   |
|               | 2. 성별의식      | 0.12*   | 1     |        |   |
|               | 3. 이차 피해 인식  | 0.17    | 0.15  | 1      |   |
|               | 4. 자기효능감     | 0.12*   | 0.11  | 0.66** | 1 |

Note. \* $p < .05$ . \*\* $p < .01$ , \*\*\* $p < .001$ .